

# 당뇨



### 정의동

약력  
 서울 생  
 환일 중고등학교  
 서울대 동양사학과  
 田夫 선생님 사사  
 경희대 한의학과  
 나나한의원 원장  
 경희대 한의과대학 본초학전공  
 경희맥한의원 원장  
 경희맥한의원  
 02-875-1075  
 팩스 02-878-3376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25-28

### ▲ 당뇨병이란?

당뇨병은 한방에서 “소갈병”이라고 하여 옛날부터 있어온 병이다. 당뇨병을 바라보는 현대의학의 관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뇨란 “체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에 문제가 생겼거나 비록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몸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 당뇨병의 종류

- 소증(消中)

열이 속에서 축적되면 비장이 허한 것을 받아서 잠복해 있던 양기가 위장을 돕게 한다. 이렇게 되면 먹는 즉시 음식을 소화하여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평상시보다 음식을 두 배나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갈증은 심하게 번조하지는 않아도 소변이 잦고 단맛이 난다. 이는 병이 중초(中焦)에 속한 것으로 소증(消中)이라고 한다.

#### • 소신(消腎)

열이 아래에 잠복해 있으면 신장이 허하고, 위에서 받으면 종아리와 무릎이 말라서 가늘어지고 골절이 저리고 아프며, 정이 흠어지고 물이 부족해서 물을 청한다. 스스로 자제하려 하지만 마시면 곧 소변이 되어 분량이 많고 탁해지는데, 이는 병이 하초(下焦)에 속한 것이며 이를 소신(消腎)이라고 한다.

#### • 강중(強中)

소신을 분석해 보면 광물성 약재를 지나치게 먹어서 진기가 소

모되고 약 기운이 머물러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음경이 늘 세게 일어나면서 성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액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강중(強中)이라고 한다. ‘소갈은 가볍고, 소증은 중한 것이며, 소신은 더욱 중하고, 강중은 죽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게 된다’고 《직지》에서 말했다.

### ▲ 당뇨병의 원인

#### • 과식, 과음, 지방질의 과다섭취

대체로 소갈은 살찐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 살찐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그 기운이 위로 넘쳐 소갈이 된다. 단맛이 나는 음식을 많이 먹어 살이 찌면 피부가 막혀 양기가 밖으로 못 나가므로 살이 찌고 열이 생긴다.

단 것은 완하시키는 성질이 있으므로 발산이 잘 되지 못하게 하여 속이 그득해지게 된다. 속이 그득하면 양기가 남아 있게 되고 양기가 남아 있으면 비장의 기운이 위장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소갈이 생긴다.

#### • 열(熱)과 화조(火燥)

몹시 갈증이 나는 원인은 심장에 열이 몰리는 데 있다. 화조로 인해 생기는 갈증은 기후가 몹시 무더워서 나는 갈증을 가리키거나 열병과 조열사(燥熱邪) 즉, 장기가 마르고 더운 것이 지나쳐 생기는 갈증을 가리키는데 열병과 화조는



음정(陰精)을 소모시켜 소갈증을 야기한다. 중병으로 인하여 음기가 소모되면 혈액이 부족해지고, 양기가 왕성하면 조열이 생기게 되는데 열이 쌓이면 조갈증이 생긴다.

•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을 지나치거나 멎어서 화(火)로 변하면 진액이 고갈되어 소갈증이 생긴다.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치밀어 오르고 기가 치밀어 오르면 혈액이 가슴속에 머무르게 된다. 혈기의역류로 순환이 안 되면 기가 피부와 근육의 사이에 막히게 되고 혈액 또한 막혀 순환이 안 되어 혈기가 정체된다. 정체가 오래되면 이것이 변해 열이 쌓이게 되는데 열이 쌓이면 진액이 고갈되고, 진액이 고갈되면 피부가 까칠까칠해진다. 이렇게 해서 소갈증이 생긴다.

• **무절제한 성생활**

지나친 성생활은 신장의 정기를 부족하게 하여 신장이 허약해져서 체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정기가 부족하면 기가 수분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변이 많고 소갈이 생기게 된다.

▲ **당뇨병의 증상**

• **폐의 열로 진액이 소모된 병증**

갈증이 나서 물을 자주 마시고 물을 마셔도 이내 갈증이 난다. 목구멍이 건조하여 화끈거리고 소변이 비교적 많고 색이 누렇거나 난 맛이 있다.

설질 (舌質) : 일반적으로 설질의

상태를 관찰하여 오장육부의 상태를 판단함. 설체(舌體 라고도 함)은 붉고 약간 메마르다.

설태 (舌苔 : 혀바닥 위에 덮여 있는 이끼 모양의 물질. 설태 변화의 관찰은 발병시키는 요인의 위치와 진액의 상태를 변별하는데 도움이 됨)은 누르스름하다.

• **위의 열이 몹시 많은 병증(중소)**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내 배가 고프며 몸은 계속 여위어 간다. 대변은 굳으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설질은 붉으며 설태는 누렇다.

• **비장과 위장의 기운이 부족한 병증(하소)**

갈증이 나지만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안색은 핏기가 없고 누렇고, 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다.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부종이나 설사가 있고 설질이 엷다.

• **신음(腎陰)이 부족한 병증(하소)**

소변이 잦고 양이 많으며 기름처럼 흐리고 맛이 달다. 입과 혀가 건조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가슴속에 열이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하여 머리가 어지럽고 힘이 없으며 허리와 무릎에 힘이 없다. 성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무의식중에 정액이 나오기도 하고 불면증이 있으며 설질은 붉다.

• **양기와 음액이 부족한 병증**

기운이 없고 저절로 땀이 나며 숨이 가쁜데 움직이면 더욱 심해진다. 입과 혀가 건조하여 물을 많

이 마시며 소변량이 많고 손, 발바닥 중심에 열이 남과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

설질은 연한 붉은색이거나 진한 붉은색이고, 설질의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있으며, 설태는 썩 깨끗하지 못하고 조금 희며 약간 메마르다.

• **음정과 양기가 부족한 병증**

힘이 없고 저절로 땀이 나며 몸이 차다. 안색이 까맣고 귓바퀴가 몹시 건조하며 허리와 무릎이 몹시 노곤하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량이 많은데, 그 상태는 기름처럼 흐리다.또는 부종이 있기도 하며 소변량은 적고 혹은 새벽녘에 설사를 하고 임포텐스와 조루가 있다. 설질은 엷고 설태는 희다.

• **혈어 (血瘀)**

소갈의 증상들은 모두 어혈(瘀血) 즉, 혈액이 멎는 증후를 동반한다. 예를 들면 얼굴에 반상출혈이 있고 두통, 사지동통, 전흉부동통, 계륵부동통, 사지마비, 반신불수, 월경에 핏덩어리가 많으며 혀에 반상출혈이 있고 혀 밑의 정맥이 청자색이거나 혈액류 변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

• **음맥(陰脈)과 양맥(陽脈)이 곧 끊어지려는 증후**

당뇨병성 혼수 환자에게서 볼 수 있다. 증상은 정신이 흐리고, 계속 잠만 자려 하며, 숨을 몹시 헐떡거리며, 숨을 쉴때 케톤 냄새가 나고 피부는 건조하다. 소변량이 많고 설질은 붉고 메마르다. 🌀